

2007 하반기 IT 이슈

2007년 상반기 IT는 2006년에 이어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주도했다. 또한, SOA와 SaaS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HSDPA, IPTV 등의 시스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사실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시장은 2003년 이후 회복기에 접어든 이후 2006년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에도 이러한 기세는 지속되었고,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다.

◆ SaaS와 SOA 기반의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의 본격적 성장

그간 서비스로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축과 관리 개념의 SOA와 유통 관점에서의 SaaS는 그간 개념만 소개하고 프로토타입으로 검토하는 수준이었지만 하반기부터 대형 프로젝트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도입하는데 SOA는 더할 나위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SOA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솔루션의 도입과 함께 BPM, BI와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솔루션의 통합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 VoIP, UC(Unified Communication)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VoIP는 통신사와 규모가 큰 기업에서 부분 도입되었지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인터넷 전화 기간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 전개와 함께 VoIP 관련 부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MS의 UC 구성도

특히, VoIP는 단순 통화 기능만으로서가 아닌 통합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서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일례로 MS가 최근 발표한 UC(Unified Communications) 관련 솔루션들은 전자우편 메일과 전화, 팩스, 화상통신 그리고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전화와 팩스가 인터넷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다.

◆ 모바일과 IPTV에서의 기회

국내 휴대폰 기반의 무선인터넷 망은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SKT 등이 망개방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면서 2007년 하반기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솔루션 시장은 다양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HSDPA와 WiBro 기반의 무선 인터넷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3G 통신 관련 서비스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006년말 시범 서비스된 Daum의 IPTV

2006년말 IPTV 시범사업 이후 IPTV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이 연구되고 있는 와중이다. 2007년말 IPTV 정책 발표 이후에 한국에도 본격적인 IPTV 시장이 개막될 것이다. 이에 앞서 통신 사업자와 방송사, 포털업계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08년 IPTV 런칭을 위한 다각적인 서비스 개발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IPTV가 2008년 서비스되기 위해서 2007년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그리고 방송 관련 솔루션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 멀티미디어 기반의 솔루션 기대

세계적으로 2007년에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UCC가 이슈였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Adobe는 플래시, MS는 실버라이트를 기반으로 한 동영상 서비스 솔루션에 대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WWW에서 생산되는 동영상 UCC의 저장과 재생, 편집 그리고 모바일 기기와의 연계를 위한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져갈 것으로 기대된다.



화상통화 시대를 열어줄 HSDPA 전화

비단 WWW에서의 동영상 서비스 뿐 아니라 HSDPA 기반의 3G 통신에서 제공되는 화상 통화와 DMB 방송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동영상과 멀티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동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관련 기술과 재생, 편집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주목받을 것이다.